

## 송과선(pineal gland)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2.06 15:58

[광주타임즈] 논설위원 최수호 = 고래로부터 지각 있는 선현들은 인간과 광활한 대자연과의 상관관계를 통찰하여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우주와 합일되는 지혜를 얻어내려는 노력을 끊임없는 기울여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관심사들이 점차 풀려가고 있으며, 특히 뇌과학의 괄목할만한 발전에 따라 많은 수수께끼들이 증명되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인간의 두개골 정중앙에 솔방울 모양으로 자리하고 있는 솔방울 샘인 송과선(pineal gland)에 대한 연구는 경이롭다.

송과선은 17세기 프랑스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육신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를 이어주는 곳이라 하여 ‘연혼의 자리(seat of the soul)’라 불렀다.

그런데 UCLA의 생리학 교수인 발레리 헌트(Valerie Hunt)박사는 인체의 에너지장을 생생하게 촬영할 수 있는 최첨단 기능을 가진 키를리안 카메라로 뇌 활동을 촬영해 보았다.

그리고 송과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수리 부분의 에너지장인 오라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비로운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선명한 보라색으로, 영적 깨달음을 얻은 사람일수록 맑은 흰색으로 확연하게 머리위에 나타나는 현상을 흰히 볼 수 있음을 확인했다.

1958년 미국 예일대학의 아론러너(Aron Lerner)박사와 그 팀원들은 안구 바로 뒤의 두개골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송과선은 완전히 깜깜한

곳에 박혀있으면서도 수정체, 각막, 망막은 물론 광수용체 세포(photoreceptor cell)를 통해 빛을 감지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발견해냈다.

프랑스 국립산업 환경연구소의 시몽바코니에(Simon Baconnier)교수와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의 시드니 랭(Sidney Lang) 교수 등은 라디오의 전파를 송신하는 트랜스미터 역할을 하는 물질인 지르코늄 수정(zirconium diamond)이 송과선에 들어있어 물리적 장애물에 관계없이 무엇이든 꿰뚫고 목표를 찾아가도록 전자기파 신호를 수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도 밝혀냈다.

송과선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미립자까지 볼 수 있고, 눈을 감고도 밖을 훤히 볼 수 있는 천리안으로, 영적으로 깨어날수록 더욱 밝아지는 투시력으로 신비한 힘을 얻게 함으로 인간의 의식과 우주의 기운이 하나로 통하도록 교신하는 ‘제3의 눈’으로도 불린다.

송과선은 물리적 장벽을 투시해 모든 걸 볼 수 있는 ‘머릿속의 빛’인 마음의 눈으로서 우주와 신호를 주고받는 송수신 장치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적 깨달음을 얻어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머리윗부분에 인체의 에너지장이 확연하게 만들어내는 오라현상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인간이 마음을 열면 열수록 송과선을 둘러싼 오라가 점점 더 커진다.

이런 현상을 보면 송과선은 물리적 장벽을 투시해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으로 우주와 교신하는 안테나 장치임이 더욱 자명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영적 경지에 오른 성자들인 석가모니 부처나 예수의 머리윗부분에 밝은 원으로 인체의 에너지장이 발하는 현상을 표현해 왔다.

하지만 지난 수백 년 동안 과학자들은 모든 정보가 두뇌에 저장된다고 믿어왔다.

그렇다면 두뇌가 죽으면 모든 정보도 죽어 사라져야 한다.

과연 그럴까? 미국의 컴퓨터과학자 사이먼 버토비치(Simon Verkovich)박사와 네덜란드의 두뇌 과학자 헤름스 로메인(Herms Romijn) 박사는 각기 인간의 두뇌를 분석해보고 축적해온 정보는 육신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우주에 저장된다는 결론을 똑 같이 내렸다.

두뇌는 정보저장고가 아니라 마치 TV가 특정 주파수를 이미지와 소리로 바꾸어주는 것처럼 정보를 송수신하는 기능 장치일 뿐이라는 것이

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펴 반 롬멜(Pim Van Lommel)박사는 “모든 정보는 우주에 떠 있는 영혼이 가지고 있다.

두뇌는 이정보를 받아쓰고 재생산하는 기능만 수행한다.”, 셀드레이크(Seldfake)박사는 “두뇌는 정보나 아이디어를 기억하거나 저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우주에 저장된 정보를 꺼내 쓰는 장치이다.

즉 두뇌는 정보가 저장된 도서관이 아니라 우주에 저장된 정보들을 송수신하는 기능을 할 뿐이다”고 말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로 전송되어 영원히 저장되므로 육신은 사라지지만 모든 정보를 간직한 영혼은 우주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억 년 동안 온갖 정보들이 축적되어온 곳이 우주다. 따라서 송과선의 기능을 활용하여 우주와 공명을 일으키는 경지에 이르면 우주로부터 무량한 정보를 받아내어 무한 능력을 발휘하는 전지전능한 인간으로 변신하게 될 것이다.

만약 모든 정보가 두뇌 속에만 갇혀있다면 두뇌 밖을 벗어나 전달되는 생각의 교신현상인 텔레파시란 없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타임즈